

내년 전주시 예산안 예비심사서 122억원 삭감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쳐 16일 제2차 정례회서 최종 확정

전주시의회는 내년도 전주시 예산안 2조 4,331억 원 가운데 122억 1,690만 원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삭감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위원회는 시장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관한 예산 7억 6,5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과 전주 글로벌 컨퍼런스 운영 예산 2억 8,000만 원 가운데 1억 1,000만 원 삭감 조치했다. 또 전주기업 반 취업지원사업은 편성 예산 2억 6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성평등 복합문화

공간 조성 시설비 14억 1,000만 원과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운영 시설비 4억 원,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 시설비 2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 2억 400만 원 가운데 시비분 7,140만 원과 친환경 경전 기저귀 지원사업 1억 4,300만 원 중 절반인 7,150만 원을 삭감 처리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4,000만 원과 전주문화원 지원 보조금

4,300만 원,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시설비 7,000만 원, 호남제일문 대표관광지 조성 기본구상용역 2억 5,000만 원,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3억 원 등을 전부 삭감하고, 일부 스포츠 대회에 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일부 삭감 조치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28억 7,250만 원 가운데 8억 원,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전액,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보조금 131억 원 중 31억 원을 삭감했다.

전주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심사한 뒤, 16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예결위 단계에서 꼭 필요한 예산과 추가 삭감할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의 요소를 없애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보건소와 대한에이즈연맹 전북지부는 1일 전주 객사 및 전북대학교 주변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 거리 캠페인' 실시

전주시보건소·대한에이즈연맹 전북지부, 올바른 정보·예방법 등 홍보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대한에이즈연맹 전북지부는 1일 전주 객사 및 전북대학교 주변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법을 알리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의 99%는 성관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올바른 콘돔 사용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전주시보건소는 안전한 성생활

을 위해 상시 콘돔을 비치하고 있으며 또 내소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바로 알기 리플릿 배부, 에이즈 예방 교육 실시, 희망자에 한해서는 무료 익명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에이즈 예방은 물론 에이즈에 대한 인식개선을 감염인에게 따뜻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영 기자

전주시의회 도건위, 팔복동 빈집 밀집구역 재생사업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는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현장 점검을 1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은 159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거점시설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주거지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해 빈집 5개소를 매력적인 매장으로 탈바꿈하고 코로나로 경제 위기를 맞은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장입점자 4명을 선정하여 입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그린숲 도서관, 돌봄방앗간 등 거점 구축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빈집 5개소를 방문해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점검에 박차를 가했다.

박선전 위원장은 “앞으로 팔복동에 일어날 변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전주서 개최

대한민국 대표 아마추어 대회로 2~4일 정식 3종목 명승부 펼쳐질 예정

전 세계 e스포츠 팬들 이목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전주로 집중된다.

전주시는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사단법인 국제교류연맹이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콘텐츠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가 후원하는 'IEF 2022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이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IEF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은 한·중 청소년 간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 시작돼 한국과 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마추어 국제 e스포츠 대회다.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선수와 관객들이 전주에 모여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현장 대회로 펼쳐진다.

대회는 각국에서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10개국 151명의 청소년 아마추어 선수단이 참가하며, 정식 3종

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 하스스톤(HEARTHSTONE), 피파 온라인 4(FIFA ONLINE4)와 시범종목으로 국내게임 이터널 리턴(Eternal Return)의 국가대항전을 통해 아마추어 최강자를 가리게 된다.

특히 정식 3종목의 경우 내년 9월에 개최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임인만큼 각국을 대표하는 e스포츠 유망주들의 치열한 경쟁과 도전으로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대회 기간 중 게임 산업 관련 대학교수와 연구원, 경제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과 한·중 e스포츠의 현장 점검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국제 디지털 콘텐츠 산업 포럼'도 열리며,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김영태 기자

대표적으로 대회장 내 연계 체험존에서는 가상현실(VR) 체험존 등은 가족이 즐기는 현실감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고, 관람객들이 국산 게임 홍보를 위한 '이터널 리턴' 게임체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양한 이벤트를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에서 MZ세대의 대표 문화콘텐츠이자, 디지털 문화 산업 중심인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e스포츠가 단순한 여가로 즐기는 게임을 넘어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은 만큼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선수단이 각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고 게임을 통해 나라와 언어,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전주시 완산구는 경찰서와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체납액 집중 영치활동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번호판 영치예고 문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20만원 이상인 차량이며,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

바일영치시스템 장치 장비를 활용해 완산구내 아파트, 대형집합건물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번호판 납땜, 불법개조, 벽면에 밀착 주차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없도록 '족쇄 영치'를 실시한다.

또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



으로 지역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

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경매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예정이다. /최이영 기자

야호학교, 학교 연계 '전주사람 프로젝트' 마무리

전주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창의형 교육을 통해 신흥중학교 학생들의 성장을 도왔다.

시는 1일 신흥중학교 1학년 학생 150명과 전주의 기본 지식을 제공해 지역애가 함양된 미래 인재로 육성시키기 위해 기획된 야호학교 학교 연계 특화 프로젝트인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발표회를 가졌다.

'전주사람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전주의 정신·문화·관광·지·역사·예술의 글감을 소재로 코칭 학습 습관 형성과 스토리가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촬영 및 편집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전주의 역사를 배우고, 직접 전주에 대해 영상을 기획·제작해보며 지역의 자긍심과 자기 주도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야호학교 코칭단과 함께 '전주 글감 코칭 학습 △영상 촬영 및 편집 활용 교육, 우리 지역의 역사 및 문화 소개 시나리오 제작, 영상 촬영 활동, 팀별 시나리오 구성 동기 및 과정 발표, 최고의 작품 투표 및 선정, 시상식 및 활동 소감 나눔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신흥중학교 외에도 울해 전주 동중학교와 오송중학교, 서곡중학교, 효문중학교, 신흥고등학교 청소년 310여



명이 전주사람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신흥중 1학년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총 14회차에 걸쳐 이번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흥중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자유학년제 수업을 통해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야호학교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사람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총 12주의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그간 19명의 야호학교 코칭단을 양성한 바 있으며, 이달 중 내년에 전주사람 프로젝트에 참여할 학교를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배경남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전주사람 프로젝트 확산을 통해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을 사랑할 힘을 길러주고, 소속되어 있는 전주에 더 많은 관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역의 인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